

증권주, 적극 주주환원으로 상승세... 주가 전망도 '맑음'

KRX 증권지수, 올해들어 17%↑
키움증권 35%, 미래에셋 13% 올라
실적 악화·부동산 PF로 부진했으나
기업 밸류업으로 저PBR주 수혜

정부가 공개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부 저PBR(저가순자산비율) 종목이 조정을 받은 것과 달리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는 것으로 평가받는 증권업종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올해들어 약 17% 상승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힌 지난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면 25%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약 8%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개별 종목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유토이미지

키움증권은 올해들어 35% 가까이 올랐다. 이날은 장중 한때 13만59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3%가량 뛰었다. 전날엔 장중 최고 2.5%까지 오르며 9200원을 기록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22%), 한국금융지주(21%), 삼성증권(7%) 등이 크게 상승했다.

증권주는 연초 실적 악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이 공개된 지난 1월 말부터 저PBR 수혜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정부가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지난 26일 이후 그동안 상승했던 저PBR주들은 최근 상승폭을 일

부 반납하며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

증권주가 상승하는 배경엔 증권사들이 정부 정책보다 한발 빠른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0월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주주 환원율 30%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3년간 사업연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부터 3년간 자사주를 매년 보통주 1500만주와 우선주 100만주 이상을 소각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39%인 주주환원율을 2026년까지 최소 3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전년보다 배당금을 늘려 1주당 22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당 성향은 35.8%로 1년 전과 동일하다.

메리츠증권을 소유한 메리츠금융지주도 주주환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지

난해 주주환원율은 51%로, 금융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6400억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했고, 4483억원(주당 2360원)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해 주주환원액이 1조883억원에 달한다.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실적발표회에서 "배당가능 이익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식의 저평가가 깊게 지속될 경우, 50%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이상의 자사주 매입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실적 기대감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 등으로 증권사들의 주가가 당분간 양호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22.4조원으로 1월 대비 15% 증가했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주환원 확대 재료가 있는 증권사는 당분간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부동산 PF 등 증권사 리스크관리 집중점검

금감원, 금융사 유동성·건전성 관리
자본시장 리스크 체계적으로 진단
불합리 영업관행·불법행위 엄정 대응

감독당국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해외부동산 등 금융투자업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동산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또 "부동산 시장의 질

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에 합리적인 PF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국내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황 부원장보는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만큼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금융투자 부문과 관련해서는 토권증권,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신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펀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공모펀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바꾸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모운용사의 경우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를 할 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연계하는 것처럼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연계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사업 참여사 모집

연간 최대 9600만원 바우처 제공

코스콤이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기간은 3월 18일까지로 참가기업 모집 설명회는 3월 6일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된다. 60개 이상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최대 9600만원까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필요시 기존시스템 이관지원, 보안컨설팅, 모의해킹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 상무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은 핀테크 기업이 안정적인 금융클라우드를 이용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IT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



코스콤 본사 전경.

/코스콤

용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도움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코스콤은 지난 2월 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2024년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 운영자'로 선정돼 5년 연속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테크TOP10+10%프리미엄ETF, 순자산 1000억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

AI 수혜 기대되는 빅테크 기업 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 순자산은 1180억원이다. 올 들어 신규 상장된 주식형 ETF 16종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는 다가올 AI 시대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나스닥100 지수 내 상위 10개 미국 빅테

크 기업에 투자한다. 글로벌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강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2023년 미국 경제를 주도했으며, 신성장동력인 AI를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이 전망된다.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져 기술주 및 대형주 투자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빅테크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동시에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는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ETF는 100% 콜옵션을 매도하는 일반적인 커버드콜 ETF와 달리 나스닥100 옵션 매도 비중을 평균 40%로 제한한다. 부분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면서도

연간 +10%가량의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한다. 지난달 상장 이후 첫 분배금 92원을 지급하며 분배율 0.86%를 기록했다. 이는 연 10% 분배율을 위한 월 목표치(0.83%)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김수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 운용본부 선임매니저는 "국내 최초로 15일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를 통한 격주 배당 포트폴리오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TIGER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ETF 등 TIGER+%시리즈를 활용한다면 격주로 인컴수익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우량 배당주와 성장주의 밸런스를 갖춘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NH투자증권, 차기 대표이사 후보 압축

윤병운, 유찬형, 사재훈 3명 확정

NH투자증권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윤병운 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부사장)와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으로 압축됐다.

NH투자증권은 5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이 같이 3명을 확정했다. 늦어도 오는 12일에는 최종 1명을 선정해 이달 2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숏리스트는 내외부 출신에 증권업계

외부 인사까지 포함됐다.

내부 출신은 IB1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병운 부사장으로 현 정영채 사장과 호흡을 맞춰왔다.

외부 출신은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 전 부사장은 삼성증권에서 채널영업부부장과 자산관리본부장, 리테일부부장 등을 지냈다.

유찬형 농협중앙회 전 부회장은 자본시장 경험은 없지만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농협자산관리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